

홋카이도·삿포로시 긴급공동선언

2020년 4월 12일

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책과 관련하여, 2차 유행 감염확대의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대응을 실시한다.

1. 삿포로 시내에서의 접촉 기회 축소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감염상황을 고려하여, 삿포로 시민에 5월 6일까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불요불급한 외출을 삼가도록 부탁한다.

또한, 타 지역 시민에도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삿포로시로의 불요불급한 왕래를 삼가도록 부탁한다.

2. 변화가의接客행위 동반 음식점 등 방문 자숙

정부의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 대처 방침'에 입각하여, 5월 6일까지 홋카이도 내 변화가의接客행위 음식점 등의 방문을 자숙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.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가 책임하에 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.

3. 긴급사태선언 지역으로의 왕래 자숙

홋카이도 방문자에 대해 홋카이도가 실시해 온 현재까지의 대책을 알리는 데 힘쓰며, 방문 후 2주 동안은 몸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불요불급한 외출을 삼가도록 부탁한다. 또, 도민에는 긴급사태선언 대상으로 지정된 도부현(都府県)으로의 왕래를 최대한 삼가도록 부탁한다.

4. 학교 및 공공시설 휴교·휴관

삿포로시 소관 초·중·고교 등을 대상으로한 일제 휴교 조치를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며, 이와 더불어 삿포로 시내에 위치한 홋카이도 소관 고등학교 및 삿포로시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비율이 높은 근린의 도 소관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동일 조치를 취한다.

또,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삿포로 시내에 위치한 홋카이도 및 삿포로시 소관 공공시설을 휴관한다.

5. 의료제공체제 충실·강화

감염자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을 상정하여,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·중등증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의 확보하고, 중증환자 등에 대한 입원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 경우에는 경증환자가 숙박 시설 등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진행하는 등 의료제공체제를 한층 더 충실히 하고 강화하는 데 힘쓴다.

6. 도내 경제 지원 강화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업을 비롯한 홋카이도 경제계에 대해, 사업 계속과 감염 사태 수습 후의 V자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홋카이도와 시가 연계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국가에 지원을 요청한다.